

하이브리드 효과...1분기 친환경차 내수판매 10만대 돌파

전기차 주춤·하이브리드차 고공행진...기아 쏠렌토 2만대 돌파 지난해 동기 대비 8.7% 증가...수소전기차 판매량도 67% 감소

올해 1분기 국내에서 국산 친환경차의 판매량이 1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판매 증가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고공행진을 하는 데 따른 것이다. 기아 쏠렌토 하이브리드가 약 2만대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고 카이발 하이브리드가 판매량 3위에 랭크되는 등 기아차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기아차의 전체 판매량 10대 중 4대는 하이브리드 차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판매량이 주춤했던 현대차 싼타페는 완전 변경 모델 출시 후 전년 보다 3배 넘게 팔렸다. 5월 업계에 따르면 국내 5개 완성차업체(현대차·기아·한국GM·KG모빌리티·르노코리아)의 올해 1분기 친환경차 국내 판매량은 10만1727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8.7% 증가했다. 1분기에 판매된 친환경차 가운데 84.4%에 해당하는 8만5828대가 하이브리드차였다. 지난해 1분

기 하이브리드차 판매량(6만302대)과 비교해 42.4% 늘어난 판매량이다. 작년 1분기(3만1337대)보다 51.4% 급감한 1만 5237대가 팔리는 데 그친 전기차와 비교하면 하이브리드차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수소전기차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67.0% 감소한 632대에 그쳤다. 차종별로 보면 3종의 하이브리드차가 1분기에만 각각 1만대 넘게 팔렸다. 기아 쏠렌토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은 1만9729대 판매됐다. 이어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1만5981대),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1만2203대) 순이었다. 지난해 8월 완전 변경된 5세대 모델 싼타페의 경우 전년 동기(4520대) 대비 3배 넘게 팔렸다. 국내 시장에서 레저용 차량(RV)이 꾸준히 인기를 끄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동력계를 더한 차종이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하이브리드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다. 기아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차종 중 하이브리드차 비율은 작년 1분기 22.2%에서 올해 1분기 14.4%포인트 늘어난 36.6%였다. 내수 시장에서 쏠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니로 등 다양한 RV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선보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우정 기아 재정본부장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반대 현상으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기관(ICE) 수요가 되살아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이브리드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의 1분기 하이브리드차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 6.3%포인트 증가한 21.0%였다. 이승주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 전무는 지난달 25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내수에서 미출고 몰량인 싼타페 하이브리드만 1만4000대"라며 "시장의 하이브리드 요구에 맞춰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하이브리드차 더 뉴 쏠렌토.

금호타이어, 대한민국 동행축제 참가...28일까지 프로모션

제품·서비스 할인, 사은품 증정

금호타이어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할인 행사인 동행축제에 참여한다.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2024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참여해 오는 28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오프라인 대리점, 온라인몰, 렌탈 서비스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할인과 사은품 지원 행사를 실시한다. 또 타이어프로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대리점(일부 매장 제외)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구매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프리미엄 제품 구매 경품으로는 토트넘 핫스퍼 관람지원(항공·숙박 포함), 인제 스피디움 VIP티



켓,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스타벅스 음료교환권 등이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또 신제품 이노비(EnnoV) 프리미엄 등 전기차용 타이어 4개 구매시 GS차지비 모바일 상품권(5만원), 마제스티 X와 크루젠 HP71 4개 구매시 GS칼텍스 X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4만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에서는 일부 제품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교체대행과 방문 장착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세차 이용권이를 지급한다. 금호타이어 렌탈서비스인 '또로로 렌탈'을 신규 가입할 경우 등록비 무료, 렌탈기간에 따른 월 렌탈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타이어프로 홈페이지(www.tirepr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병석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올해로 5년차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에 금호타이어는 올해도 동참하게 되었다. 다양한 지원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잠재되어 있는 국내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첫 픽업트럭 위장막 그려 보세요

가정의 달 이벤트 디자인 대회...31일까지 응모

기아는 브랜드 첫 픽업트럭인 '더기아타스만'의 아트 위장막을 그려 보는 '타스만 디자인 대회' (사진)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미술 재료와 디지털 드로잉 툴을 활용해 타스만의 위장막을 그려 보는 행사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 또는 개인은 기아 공식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에서 타스만 위장막 도안을 내려받아 디자인한 후 필수해시태그를 포함해 본인 계정에 올리면 된다.



응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대회 결과는 다음 달 10일 기아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 게시하며, 수상자들에게는 별도 안내한다. 기아는 중형 픽업 타스만을 내년부터 국내와 호주, 아프리카 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타스만 차명은 호주 최

남단에 위치한 섬 타스마니아와 타스만 해협에서 유래했다. 기아 관계자는 "출시 전부터 '더기아타스만'에 뜨거운 호응을 보낸 고객들을 위해 가정의 달 맞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선물도 받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벤츠, BMW 제치고 월간 수입차 등록 4개월만에 1위 탈환

수입차 전년 대비 4.6% 증가 국산 신차등록은 5.6% 감소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 월간 수입 승용차 등록 대수에서 BMW를 제치고 4개월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6일 카이스트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4월 수입차 신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6% 증가한 2만2150대였다.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 1위는 6679대를 기록한 벤츠가 차지했다. 이어 BMW가 5644대로 2위에 랭크됐다. 이로써 벤츠는 지난 1~3월 BMW에 월간 신차 등록 대수 1위 자리를 내줬다가 넉달 만에 정상상을 되찾았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3위(1722대)에 올랐다. 차종별로 봤을 때 수입차 등록 대수 1위 모델은 벤츠 E클래스로, 2079대를 기록했다. 이어 테슬

라 모델3(1716대), BMW 5시리즈(1480대)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 국산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한 12만577대로 집계됐다. 1위 모델은 기아 쏠렌토(8131대)였으며, 기아 스포티지(7376대), 현대차 그랜저(7137대) 등이 뒤를 이었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합한 4월 전체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4.2% 줄어든 14만2727대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와 행안부, 교육부, 아이들과미래재단 관계자들이 대전 용운초 앞에서 스쿨존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벤츠 사회공헌위원회, 4개 기관과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시작

초등학교 100곳 교통안전 지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의장 마티아스 바이트)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사단법인 녹색어머니 중앙회,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스쿨존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00여 개 초등학교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지난달 29일 대전 용운초등학교 앞에서 '시속 30km 준수', '횡단보도 앞, 우선멈춤' 등의 깃발 안내 등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022년 녹

색어머니 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린이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타 민간 및 시민단체 등 12개 기관 및 단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에는 서울 지역 130개의 초등학교에 총 2000개의 교통안전 깃발을 기증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지역 155개 초등학교에 총 2000개의 깃발을 제공했다. 또 올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 초등학교 100여 곳에 1000개의 교통안

전 깃발을 연말까지 전달하고,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이어 가는 등 어린이 사고 예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이은정 위원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안전한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주요 기관 및 단체와 손잡고 저변을 확대해나가기에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캠페인이 어린이와 운전자 모두의 실질적 사고 예방 수칙 준수를 독려하여,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G마켓, 캐스퍼 구매 이벤트

빅스마일데이 기간 할인 쿠폰

현대차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G마켓이 오는 7~20일 진행되는 연중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 '빅스마일데이'와 연계해 캐스퍼(사진) 구매 시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G마켓 구매 금액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캐스퍼 디에센셜 1대를 캐스퍼 10만원 할인 쿠폰이 주어진다. G마켓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

고,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캐스퍼를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 쿠폰을 사용해 캐스퍼를 출고 받은 고객에게는 G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스마일캐시가 증정된다. 현대차는 빅스마일데이에 G마켓 구매 금액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캐스퍼 디에센셜 1대를 제공하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